

2026학년도 제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6학년도 제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2026년 1월 13일(화) 14:00			
회의장소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위원구성 및 참석	교직원 위원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참석
		김한승	교육지원처장	참석
		안정국	학생처장	불참
		이준영	대학원 교학처장	참석
	학생 위원	강용민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참석
		윤상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참석
		신현석	인문캠퍼스 특수대학원	참석
		이현탁	자연캠퍼스 대학원	참석
	전문가	박준영	전)KB국민은행 부지점장	참석
	간사	안경훈	기획예산팀장	
회의 배석	기획예산팀 심소정, 국정애			
안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			

회의 주요 내용

- 위원장 : 간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함
- 간사 : 2026학년도 제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라함)는 총원 9명 중 8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원들에게 등심위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회의 안건 설명을 요청함
- 간사 :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현재 우리 대학 예산 현황을 설명함
 - 2026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부서로부터 수입 및 지출 예산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한 수입예산은 2,155억 원, 지출예산은 2,360억 원으로, 지출예산이 수입예산을 205억 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부서 협의를 통해 지출예산을 현 기준 대비 138억 원 조정하였고 이후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및 추가적인 지출예산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지출예산이 수입예산을 39억 원 초과하는 상황임.
 - 교육부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3.19%로, 이를 반영하여 평균등록금을 약 3%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등록금 3% 인상에 따른 수입예산 32억 원 증액과 지출예산 7억 원을 추가로 조정하여 본예산의 재정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며, 총예산 2,200억 원 수준으로 예산 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장 :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요청함
- 위원 : 지난 연도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하여 건축기금이 타 연도에 비해 많이 적립되었는지 질의함
- 간사 : 등록금 동결 기간에는 건축기금을 적립하지 못했고, 기존 기금을 모두 신축 및 노후시설 보수에 사용하면서 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었음. 2024학년도 말에 결손을 해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비등록금 재원을 통해 기금 적립이 가능해졌으며, 학생 등록금은 기금 적립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위원장 :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 위원 : 작년 등록금 인상률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수가 동결을 선택해 작년 등록금 인상조차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음. 또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냄.
- 위원 : 교육부에서 제시한 물가 인상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등록금 인상분이 일부 반영되어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액의 인상조차도 크게 체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상하는것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물론 학교 측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하고 공감하나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등록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며,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냄
- 위원 : 노후된 건물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냄
- 위원장 : 등록금 책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등심위 일정을 안내하고, 15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함

2026. 1. 13.

작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